



이웃종교

RELIGION

원불교, 본격적인 해외포교 나서

미주지역에 첫 해외총부 ... 2010년 11월 완공 예정

원불교가 미국에 첫 해외 총부를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인 해외 포교에 나설 전망이다.

원불교신문 7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원불교 미주 교당 및 국내 원불교 관계자들은 7월 5일 미국 뉴욕주 컬럼비아 카운티 클레버락에서 원불교 미주 총부(Won Dharma Center) 기공식을 개최했다.

2010년 11월 완공예정인 미주 총부는 172만 2600㎡(약 52만 2천여 평)의 대지에 선방과 행정빌딩, 숙소가 위치하는 종교활동구역과 선의 정원, 숲속기도터 등 야외활동 구역, 청소년시설과 노

후 수양관, 대법당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미주총부 건설은 2015년 원불교 창시 100년을 맞아 원불교100년기념사업본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원불교의 세계화를 향한 본격적인 시도로 앞으로 정신개벽도량, 생활훈련도량, 미주교화지원센터, 종교연합운동의 근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원불교 교단은 "미주총부를 통해 미국 현지에 정착 가능한 각종 교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연구·지원하고 서양사회에 적합한 종교 문화와 제도를 마련하는 초석

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불교는 국내에서는 익산 중앙 총부 아래 16개 교구에서 505개의 교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주 지역 등 해외에는 65개의 교당을 두고 있다.

원불교 교도수는 국내외를 포함해 출가교역자는 1911명, 재가교도는 27만1000여 명 정도다.

한편 원불교 미주교화 역사는 40여 년으로 현재 25개의 교당과 필라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등 11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70여 명의 출가 교역자들이 교당과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너는 기자

지금은 '진리 안의 사랑'이 필요한 때

교황 베네딕토 16세 첫 사회회칙 반포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취임 후 처음으로 사회회칙인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을 공식 반포했다.

베네딕토 16세는 7월 7일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의장 레나토 마르티노 추기경과 사무총장 지 암파올로 크레팔디 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사회회칙을 통해 "경제 발전을 포함한 참되고 총체적인 인간 발전을 위해서는 '진리 안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황의 이번 회칙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그 해법을 찾고자 이탈리아에 모인 선진 8개국 정상들의 회담 개막일에 맞춰 발표돼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이는 회칙에 대한 환기와 주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황은 기자회견 이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의 연이은 만남을 통해서 재차 회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했다.

사회회칙은 사회에 속해 있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첫 사회회칙 '진리 안의 사랑'을 엮은 책자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화신문)

사람들의 공동 복지에 장애가 되는, 그리고 개인·가정·공동체 및 국가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문화적인 문제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교황의 회칙을 일컫는다.

19세기 말 가톨릭 교회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었다. 자유주의·사회주의 등 사상적 흐름이 고조되자 당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의의는 점점 더 상실돼 갔고 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상태였다.

이러한 혼잡한 상황에서 신자들은 그러한 상황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가톨릭 교회와 교황청의 권리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3세(재위 1878-1903)는 가톨릭 교회의 완전성 안에서 교회의 전통을 현대의 정신과 화해시키는 길을 모색했다. 즉 레오 13세 교황은 사회의 위기 상황에 요구되는 예언자적 임무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당시의 교회와 사회를 위해 하느님의 성령이 맡긴 예언적 메시지를 자신의 노동 회칙을 통해서 선포했다. 이후 100년 동안 역대 교황들은 여러 사회 회칙들을 통해 그리스도교 사회 교리를 세상에 널리 알려 왔다.

한편 회칙 '진리 안의 사랑'은 20여 년 만에 반포된 사회회칙으로, 선입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1991년 교황 레오 13세의 '노동헌장'(Rerum Novarum) 반포 100주년에 즈음해 '백주년'(Centesimus Annus)을 반포한 바 있다.

이너는 기자

"산 좋고 물 좋고 가족 다 모여서 더 좋아요"

승가원 산하 5개시설 너리굴 마을서 여름통합캠프 열어

"나는 1박 2일간의 승가원 여름통합캠프 기간 동안, 가족들과 사이 좋게 지내고,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캠프가 끝날 때 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은엽(승가원 장애복지타운)씨와 유태호(승가원 장애아동시설)어린이가 우렁찬 목소리로 입소식 선서를 한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태원은 7월 28-29일 경기도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제1회 승가원 여름통합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승가원의 장애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승가원 산하기관인 장애아동시설·자비복지타운·삼전종합사회복지관·한솔종합사회복지관·성북장애인복지관 5개 시설의 장애가족과 직원 및 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에 대해 법인사무국 유평화 총무행정팀장은 "이번 캠프는 장애로 인해 이동이나 나들이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 가족들에게 자연을 느끼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색다른 추억을 전해주기 위해 계획했다"며 "승가원 가족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 안성 너리굴 마을 전체를 임대했다"고 설명했다.

입소식 전, 산 좋고 물 좋은 캠프장 대강당에 모인 승가원 가족들은 흥겨운 마음에 신나는 음악에 몸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입소식에서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관장 동욱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1년 전부터 통합캠프를 준비하며 전국 곳곳을 다니며 장소를 답사했다. 마침 장애가족 모두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며 "날씨가 참 좋아 다행이고 1박 2일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캠프에는 동욱 스님을 비롯해 현관·묘전·성화·동준 스님 등 각 기관별 관장 전원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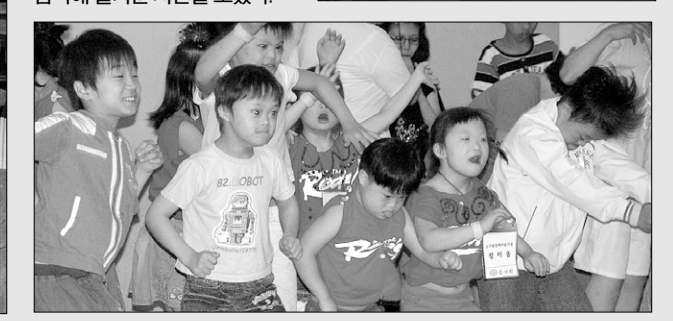
성북장애인복지관 관장 현관 스님은 "올해 처음으로 통합캠프는 진작에 이런 규모로 진행됐어야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통합캠프를 매년 진행해 가족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1회 승가원 장애가족 여름통합캠프



올해 첫번째로 열린 '승가원 장애가족 여름통합캠프'. 승가원 가족들은 1박 2일 동안 물놀이, 댄스배틀, 비누만들기 체험등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 말했다.

자비복지타운 원장 묘전 스님은 "이번 첫 캠프가 단순한 통합캠프가 아닌 법인의 슬로건인 '불교장애복지의 리더, 승가원'을 구현하는 캠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소식 후, 승가원 가족들은 숙소에 짐을 풀 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준비운동 끝나기가 무섭게 풀장으로 뛰어들었다. 김장수(11·장애아동시설) 어린이는 "물놀이 하니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라며 소리쳤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아동에게는 1:1로 봉사자가 붙어 다녔다. 손태욱 자원봉사자(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는 "10번째 찾은 자원봉사활동인데 좋은 추억 많이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캠프에는 승가원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 민박 식당들이 맘껏 뛰어놀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또한 기관 직원들이 팔빙수 기계를 가져와 손수 팔빙수를 만들고, 전 참육수, 토마토 등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해 무

릉도원이 따로 없었다.

물놀이 활동이 끝나고 각 기관들은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장애아동시설은 노래자랑을,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레크레이션 게임을 준비했다.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과 1:1 짝을 지어 캠프에 참여한 비장애 봉사자가 친구이름 맞추기, 과자 많이 갖다 놓기 등 다양한 게임을 했다.

한솔복지관 이종희 사회복지사는 "장애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나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고, 비장애 청소년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저녁식사 후, 장애가족들은 대운동장에 모여 캠프파이어를 열고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자비복지타운 사물놀이 팀의 신명나는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승가원 가족들은 둥글게 모여 신나는 율동과 가위바위보 게임, 짝짓기 게임, 기차놀이 등에 참여했다. 캠프파이어 도중 갑자기 비가 내리자 가족들은 모두 대강당으로 이동, 장기자랑 및 댄스배틀로 실력

들을 뽐냈다. 강경열(35·자비복지타운)씨는 "시원하고 경치 좋은 곳에 오니 기분이 좋고 수영하는 것이 재밌었다. 캠프파이어를 할 때 사물놀이 공연으로 북을 쳤는데 사람들의 흥을 돋우어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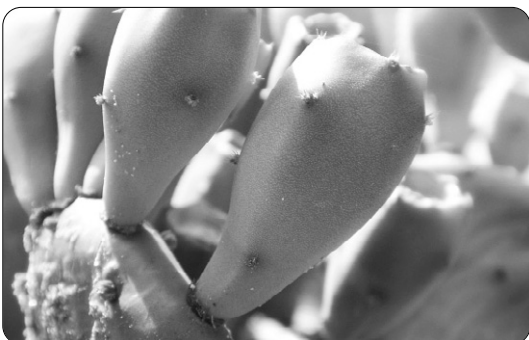
이튿날에는 각 기관별로 와이어공예, 팻메이킹, 비누만들기, 칠보공예, 축구·농구게임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했다. 박장수(16·장애아동시설) 양은 예쁘게 칠한 나비모양 동(銅)판을 보여주며 "제가 칠보공예로 목걸이 팬던트 만든 거예요 이쁘죠?"라며 자랑을 했다.

체험활동이 끝난 후 가족들은 대강당에서 퇴소식을 가진 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해산했다.

이번 통합캠프를 총괄지휘한 법인 사무국 이현철 전략사업팀장은 "통합캠프가 처음이다 보니 안전사고가 날까봐 걱정됐지만 무사히 식구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 뚝뚝했고, 모든 행사가 수월하게 진행돼 흐뭇하다"며 "앞으로도 승가원 가족들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너는 기자 bohyung@buddhapia.com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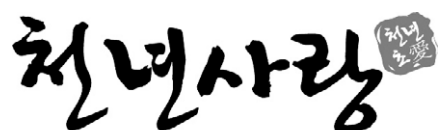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원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